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3월 6일(금)

(윤력 1월 18일)

Пятница

6 марта 2026 г.

№ 9 (1217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여성 여러분!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따뜻함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봄의 명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아내, 자매, 딸들, 여자친구와 여성 동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삶에 아름다움과 조화를 심어주고, 우리의 존재를 의미로 가득 채워줍니다. 겉모습은 연약해 보여도 여성은 강인함의 화신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이 쏟아붓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어 가정의 온기로 친지들을 감싸고, 아들과 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며, 직장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고 계십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행복한 모성>이라는 지역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미래의 어머니와 자녀를 가진 여성들을 배려하여 보살피고,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존중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길 바라며, 가까운 친지들과 화목하고, 행복과 사랑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2026년 사할린 국립대, 학과목 신설 및 국비 장학생 정원 역대 최대

대학 발전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인력 양성 문제가 주 정부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사할린 국립대는 2026년 대규모 신입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핵심 대학으로서 국비 장학생 정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에 따른 새로운 학과를 개설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공보실이 전했다.

2026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 발표된 모든 전공 분야에 국비 장학생의 정원은 1,098명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여 정규 주간 학사과정의 장학생 정원이 기술 분야에 가장 많이 배정되었는데 전력 및 전기공학 분야가 62명, 석유·가스 산업이 50명, 건설 분야가 30명이다. IT(정보통신) 분야는 80명으로 역대 최고로 많고, 추가로 유료 입학 정원은 500명이다. 신입생 서류 접수는 6월 20일에 시작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청년들이 고향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각 제반시설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현대적인 '대학생의 거리'를 건설하고 있고 '사할린테크' 캠퍼스 완공에 박차를 가하며, 매해 장학생 정원도 늘리고 있다. 특히 사할린 국립대는 극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가스프롬의 거점 대학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학의 입장은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이고, 교육적이며, 사회 진출에 대한 전망을 열어줄 것이다.

사할린의 학생들은 고향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향토인 사할린을 잘 알고, 사랑하는 전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사할린 국립대에서 교육을 받은 모든 새로운 전문가들은 바로 우리 지역 미래의 자산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할린 국립대학은 학교 졸업생들의 현실적인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춤형 진로를 지도하고, 유능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3면에 계속)

단신

러시아 육상선수권대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종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전국 57개 지역들에서 3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3월 3일에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번 경기는 2025년에 완공된 극동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실내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육상대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러시아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따라 개최되었다.

경기가 총 12개 종목에서 치러져 대회 마지막 날 200m, 1,500m 달리기와 남녀 4x400m 계주 종목에서 우승자에 대한 다양한 메달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육상경기장 관중석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전국 육상연맹 회장인 표트르 프라드코프가 참석해 관람했다.

이번 육상대회는 극동지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전국 육상선수권대회로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전국 육상연맹 회장의 신뢰에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 육상선수권대회 개최가 사할린주로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전문가> 선수권대회 우승자에게 시상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지역 단계 <전문가> 직업기능선수권대회와 2026 첨단기술선수권대회의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대회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렸으며,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열리는 중요한 대회였다. 지역 단계의 우승자들은 사할린주를 대표하여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러시아 각 행정자치단체들에서 열리는 지역 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올해 사할린 지역 직업기능인대회에 참가자는 496명으로 14세 이상 학생이 156명, 대학 및 전문학교 대학생이 340명으로 역대 최대의 규모였다. 참가자들은 건설, 의료, 서비스 분야, 운송, 물류, 첨단기술 등 84개 기능종목에서 뛰어난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했다.

3월 19일, 리마렌코 주지사와 사할린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오는 3월 19일(목)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과 사할린 주지사와의 간담회가 조성되어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은 전화(8(4242) 670-391)로 등록할 수 있다.

간담회에 주요 의제는 장애인 사회복지, 모성과 아동보호,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 지원 등을 논의하고, 주민들은 각종 사회적 보장과 혜택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민들의 여러 불합리한 생활환경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간담회 등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며, 전화(8(4242)670-391)로 등록이 가능하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사할린 중앙변호사회 유일의 한인변호사 켄 나탈리아 만나다

"재판소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움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변호사"

지난 연말 한 행사에서 사할린 한인 3세인 켄(정) 나탈리아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공식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오랜 경력을 가진 한인 여성으로서 그녀의 삶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켄(정) 나탈리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변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라고.

37년째 변호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켄 나탈리아 센헤베르나(1964년생)는 사할린 중앙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저는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미성년자 담당 조사관을 꿈꿨죠. 그 꿈이 결국 저를 법학과로 이끌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토스크 국립대학교 법학과를 1988년에 졸업하고, 아무르주 벨로그orsk으로 변호사로 파견됐다. 당시 대학에서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 10명에게만 변호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각종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나탈리아에게는 잘된 일이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줄곧 변호사를 꿈꿔 왔기 때문이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벨로그orsk 시절을 특히 소중하게 기억한다.

"그곳에서의 3년은 정말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당시 구급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변호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신뢰를 얻었죠. 그 경험이 제가 변호사로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파견 임기가 끝난 후 나탈리아는 고향 사할린으로 돌아와 1991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로서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그녀는 현재 형사사건부터 가족·토지·노동 분쟁까지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다.

그녀가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매력은 '창의성'과 '독립성'이라고 한다.

"변호사는 항상 자유롭고 독립적입니다. 정당한 일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죠. 의뢰인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과 함께 방어전략을 선택합니다. 영감을 받아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재판소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움과 감성적인 여유를 허용받는 존재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다른 어떤 재판 참가자도 갖지 못한 특권이죠. 비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 이것이 제 일의 보람입니다."

자기계발과 집필 활동. '작가. 변호사'의 길

나탈리아 변호사는 말하길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항상 노력해 왔다. 공부도 하고 연구도 다니고 전문 서적도 많이 읽었다. 하지만 개인적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자기계발은 비교적 늦게 시작했다."고 그녀는 털어놓았다.

"아마 55세쯤부터였을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신을 계발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사할린 변호사 켄 나탈리아는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녀가 쓰고 출판한 책만 벌써 4권이며, 현재도 저서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글쓰기는 그녀의 오랜 동반자다. 어릴 적 학교에서 작문을 시작해 '소웨츠키 사할린' 신문의 통신원으로 활동하며 비판 기사를 쓰기도 했고, 주간지 '카피탈 콤포니'에서는 법률 칼럼을 연재했다. 학창시절에는 우리 한민족지(당시 '레닌의 길로', 현 '새고려신문')에 글을 기고하며 기자가 될 뻔하기도 했다.

첫 번째 출간한 책은 2019년에 출판된 《알레리안 블라디미로비치 쿠이비체프 토스크국립대학교 1988년 졸업생 연대기》였다.

"2018년, 대학 졸업 30주년 기념모임을 가진 후 동기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정말 재능 있고 특별한 인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의 학창시절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삶을 기록하고 싶었다. 두번째 책 《소중한 사람들(Родные люди)》은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예전부터 쓰려고 했었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사촌 형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계기가 돼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글을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기로 했다.

세 번째 책 《인생, 그 자체》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심리적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첫 두 책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세 번째 책은 조금 달랐다. 사건을 맡으면서 느끼는 점, 생각하는 점 등을 이 책에서 진솔하게 적었다. 네 번째 책 《환갑을 앞두고 쓴 200개의 아포리즘(격언)》은 2023년에 쓰여 이듬해 출간됐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글쓰기 스타일에 대해 "문학적 저널리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저는 실제 인물, 실제 행동, 실제 삶을 바탕으로 씁니다. 저는 영감이 떠오를 때 글을 쓰기 때문에 스스로를 작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과 삶의 경험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에 대해 씁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직업상 VK, 왓츠앱,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업무와 관련해서다. 그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명언이나 순수하게 미학적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좋아합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생각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가족과 뿌리에 대한 애정

그녀에게 가족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만났던 그녀는 어머니(아버지 별세)와 외동딸을 깊이 사랑한다고 했다.

"강하고 믿음직한 후원자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과 헌신

에 둘러싸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에게 가족은 신뢰와 헌신입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죠."

한인 3세로 사할린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부끄럽게도 제 가문의 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소련 시절을 거쳐 러시아에서 살아오며 제 사고방식은 이 땅의 역사와 문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역사와 역사적 고향에 대한 관심은 분명하여 가능한 한 지식을 넓히려 노력 중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연이나 바닷가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산책과 독서를 즐긴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족, 일,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사람에게 신뢰성, 낙관주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갓 구운 빵 냄새, 쓴 초콜릿의 맛, 봄꽃의 향기'다. 인생 좌우명은 영화 '산 니코브의 땅'의 주제곡에서 나온 "오직 한 순간뿐이다, 그 순간을 붙잡아라"이다.

현재 켄 나탈리아 변호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형사사건을 비롯해 가족·토지·노동 분쟁 소송 대리, 중재 실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호사로서 3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켄 나탈리아는 사할린중앙변호사회 유일의 한인 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보기 드문 장기간 활동하는 노련한 변호사로서 그녀의 전문성에 대한 의뢰인들의 신뢰는 여전히 뜨겁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극동연방관구 우수 연극,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상연

2026년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7회 극동 연극축제가 개최된다. 사할린주는 국내 및 지역 우수 연극단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3년째 개최하고 있다. 연극축제는 극동지역에서 연방 극장예술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의 예술감독은 러시아 국민배우이자 국민극장 예술감독인 예브게니 미로노브이다.

극동 연극축제는 러시아 연방 문화부와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2026년에 극동연방관구 23개의 극장으로부터 35편의 참가 작품들이 접수된 가운데 연극 전문가위원회는 축제 주요 상연 작품으로 11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극동연방관구 연극단의 상연과 더불어 러시아 우수 연극단의 상연 및 거리 행사, 교육 행사와 연출공작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선정된 주요 연극 프로그램으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 아무르주 (블라고웨센스크) 단막극장, 알렉산드르 푸츠크의 감독, 안톤 체호브의 작품 상연

<도브라토브. 우리 것> - 사할린 안톤 체호브 국제극장(유즈노사할린스크), 이고리 레베제프의 감독, 세르게이 도블라토브의 작품 상연.

<레이디 카펠렛티> - 이르쿠츠크 청소년극장, 알렉산드르 티티기로브 감독, 니나 마주리의 작품 상연.

<작은 비극> - 콤포스키 나 아무르 단막극장, 제니스 말류틴 감독, 알렉산드르 푸쉬킨의 작품 상연.

<유년기> - 하바롭스크 청소년극장, 드미트리 쉬의 감독,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 상연.

<만아들> - 우수리이스크 시지구 코미스사르젠프스카야 단막극장, 알레세이 마르티노브 감독, 알렉산드르 밤필로브의 희곡 상연.

<초원의 신기루. 다쉬> - 브란스크 호츠 남사라예브 단막극장, 올레그 유모브 감독.

<꽃뿔한 주석 병정> - 연해주 청년 단막극장, 안드레이 오파린 감독,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상연.

<오리 사냥> - 국립 러시아 베스투제브 단막극장, 예브게니 모르드윈 감독, 알렉산드르 밤필로브의 작품 상연.

<갈매기> - 캄차트카 단막극 및 코메디극장, 게오르기 수르코브 감독의 안톤 체호브의 작품 상연.

<치카-치타. 라이브스트림> - 자바이칼 변경 베레진 단막극장, 위탈리 표도로프 감독, 옥사나 로쭌 작품 상연

이 연극축제는 전통적으로 극동지역 연극단체들이 연합하는 핵심적인 문화 행사장 중 하나가 되고 있다.

11 лучших спектаклей ДФО покаж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им летом

С 21 июня по 5 июля 2026 г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VII Фестиваля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принимает масштабное культурное событ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лучшие театр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Фестиваль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программы выступает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еатра Наций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Проект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6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лучили 35 заявок

от 23 театр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отобрал 11 постановок, которые вошли в основную афишу фестиваля. Помимо спектаклей коллективов ДФО, зрителей ждут показы ведущих театров России, ул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режиссёр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 В основную программу вошли:
 - "Дама с собачкой" — Амурский областной театр драмы (Благовещенск), по произведению Антона Чехова, режиссёр Александр Пучков;
 - "Довлатов. Наши" —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им. А. П. Чех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 произведениям Сергея Довлатова, режиссёр Игорь Лебедев;
 - "Леди Капулетти" — Якутский театр юного зрителя, автор Нина Мазур, режиссёр Александра Титигирова;
 - "Маленькие трагедии" — Комсомольский-на-Амуре театр драмы, по произведению Александра Пушкина, режиссёр Денис Малютин;
 - "Отрочество" — Хабаровский театр юного зрителя, по произведению Льва Толстого, режиссёр Дмитрий Ши;
 - "Старший сын" — Театр драмы Уссури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мени В. Ф. Комиссаржевской, по пьесе Александра Вампилова, режиссёр Алексей Мартынов;
 - "Степные миражи. Dashi" — Бурятский театр драмы имени Хоца Намсараева, режиссёр Олег Юмов;
 - "Стойкий оловянный солдатик"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ево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молодежи, по сказке Ганса Христиана Андерсена, режиссёр Андрей Опарин;
 - "Утиная охот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ус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им. Н. А. Бестужева, по пьесе Александра Вампилова, режиссёр Евгений Мордвин;
 - "Чайка" — Камчатский театр драмы и комедии, по пьесе Антона Чехова, режиссёр Георгий Сурков;
 - "Чика-Чита. Livestream" —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ево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им. Н. А. Березина, автор Оксана Розум, режиссёр Виталий Фёдоров.

(8면에 계속)

'은하수'한글학교, 사할린동포법 관련 강연 개최

지난 3월 1일(일), '은하수'한글학교(교장 유경옥)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파루스'센터 체스클럽에서 동포 2세인 이채인 씨의 강연회가 열렸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을 주제로 한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약 50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참가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강연자 이채인 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947년생인 그는 건축가로 활동해 왔으며, 설계 회사 '피라미드'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돌아가신 1세 부모의 자녀로서, 그는 특히 사할린동포 2세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세미나와 대회에도 적극 참가해 왔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2022년과 202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문제 관련 대회'(주최: 상트페테르



부르크 사할린한인회)에서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며, 사할린동포법 개정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채인 씨는 최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직 법률안이 공식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실 참석자들은 강연 자체보다는 이 법률안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정보가 부족한 탓에 소문만 듣고 자리를 찾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모 사망 시 2세 누구나 영주귀국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영주귀국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2세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등이었음으로 보인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3월 3일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3월 10일 사할린동포법 개정법률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 시행령은 9월 10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할린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됐으며, 2024년 7월에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 동반가족의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에서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동반가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가족도 동반가족에 포함되면서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대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2세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할린동포 위문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에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총 5,690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총 3,263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크라스노고르스크 해안구역에 9척의 침몰선, 올해 내 인양

2026년 연말까지 크라스노고르스크, 토마리 지역 해역에 침몰된 선박 9척을 인양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교통부는 '자연환경보호적 변형' 대통령 국민기획 중 하나인 '대대적인 청소' 연방기획 시행의 일환으로 정돈작업을 실시한다.

사할린주 도로교통부 막심 조골레

브 장관은 "이 작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 절차가 완료되었고, 시공사와 국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문가들이 토마리 지역 내 침몰선 인양을 위해 서류작업에 나선 가운데 올해 안으로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홈스크, 돌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들에서 인양작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는 국민기획 '자연환경보호적 변형'의 지원으로 사할린주에서는 2030년까지 총 29척의 침몰선을 인양할 계획이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사할린 해역 정돈에 따른 작업지시로 해안가 정돈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년 사할린 국립대, 학과목 신설 및 국비 장학생 정원 역대 최대

(1면의 계속)

2026년 주요 사건 중 하나는 사할린 지역의 근본적인 산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생물공학>, <광고 및 마케팅의 사회학>, <지리분석 및 관광 공간계획> 3개 학과가 대학에 신설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정보보안', '언론' 및 '물리공학' 전공 학과가 개설돼 처음으로 국비 장학생 정원이 배정되었고, 법학과 장학생 선발도 재개되었다.

사할린 국립대 알렉세이 오그네와 총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사할린 국립대는 사할린의 학교 졸업생들이 사할린

대학에 입학하고, 향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학생 정원을 늘려왔다. 올해 처음 정보보안 학과에 국비 장학생 정원이 15명으로 배정됐는데 이 학과는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공학의 현대 세계에서 대단히 수요가 높으며 "물리공학을 비롯해서 화학공학과 동력 전공에서도 국비 장학생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석유 및 가스, 수소 및 전력과 관련된 산업 분야는 우선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또한 사회인문학 전공 분야인 언론, 사회학, 마케팅 학과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어 국비 장학

생을 선발하고 있다. <2030년 우선 과제>, <첨단기술학교>프로그램 참가 대학으로서 모든 교육정책은 사할린과 극동지역 및 북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할린 국립대 정규과정에서 4,422명이 재학 중이고 그중 고등교육과정에는 1,869명, 직업교육과정에는 282명의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에 국비 장학생 정원 역대 최대 및 신설 학과 운영은 사할린 지역의 인재 양성과 사할린에 유능한 청년 유출 방지를 향한 대학 교육의 행보를 확증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 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성도

관리번호	95269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성도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미상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

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외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외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였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

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김성도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окчхо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возобновила работу паромная линия

Паромная линия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ортом Сокчхо и российским Владивостоком, приостановленная в январ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ехнических проверок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вновь начала работу. Об этом 3 марта сообщили власти города Сокчхо,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на побережье Восто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По данным мэрии, оператор линии - компания GNLST - в период перерыва перевел судно в Пусан, гд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по повыш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маршрута и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обслуживания. С 28 февраля паром GNL Grace вновь выполняет рейсы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Сокчхо - Владивосток.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СМИ, в процессе модернизации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обновление интерьера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включая караоке-оборудование, игровые автоматы и массажные кресла. Эти меры,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минимизацию неудобств при длительных морских переходах.

До апреля компания будет предлаг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акет "Владивосток 3 ночи - 4 дня" по весьма скромным ценам. В него входят билеты на паром туда и обратно, питание на борту, прожи-

вание в гостиниц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ранспорт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услуги корейскоязычного гида и входные билеты на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Стоимость тура для отправлений с 28 февраля по 21 марта составляет 299 тысяч вон (около 205 долл. США), для рейсов с 28 марта по 25 апреля - 399 тысяч вон (275 долл.). С ма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к нового продукта - тур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4 ночи и 5 дней с двухднев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окчхо заявили о намерении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оператором разви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дукты на базе морского маршрута, добиваясь баланса между въездным и выездным туризмом и формируя устойчивый спрос.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эри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ласти стремятся создать "структуру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замкнутого цикла", при которой будут совместно расти гостиничный, ресторан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торговый и портовый сектора, а порт Сокчхо станет опорным узлом морского туризма и логис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в регионе Восто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Газету «Нодон синмун» будет чит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удитория

Сеул, 5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Реш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разрешить более широкий публичный доступ к главн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газете «Нодон синмун» вызвало споры о потенциально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м влиянии на молодых читателей. В связи с этим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заявило, что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уже приняты.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доступ обычно ограничен по возрастному признаку.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Коре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доступ пользователям от 16 лет и старше, а Библиоте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 пользователям от 18 лет. Пользователи младше этого возраста могут просматривать материалы после подачи отдельной заяв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оступ к газете «Нодон синмун» имеют около 20 учреждений из 181 авторизованного, в том числ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объеди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Кореи, Библиоте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круп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библиотеки, такие как Сеуль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нституты. В эт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принципе могут читать оригинал газеты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Споры разгорели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еревело газету «Нодон синмун» из категории «специ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категорию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общего чтения, что упростило доступ к ней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крупных библиотеках. Ранее доступ к газете был возможен только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личности и цели посещения из-за опасений, что в ней содержатся материалы, восхваляющ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ежим. После ослабления ограничений публика может свободнее получать доступ к печатному изданию, однако онлайн-доступ к сайту газеты по-прежнему заблокирован.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явило, что планирует расширить доступ к информации 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том числе добиться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й с примерно 60 связанных с этой темой веб-сайтов, таких как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путем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б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ласти по-прежнему могут ограничивать доступ в интернете к материалам, которые, по мнению Корей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коммуникациям, нарушают Закон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Эксперт Ким Е Дон: Южной Корее следует присмотреться к газу сибирской Арктики

Извест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пециалист по поляр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Ким Е Дон заявил, что Сеулу следует уделять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Арктике и возможностям, связанным с ресурсами Сибирской Арктики и развитием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фактически призвав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РФ в этих вопросах. Данные заявления эксперт сделал в ходе интервью местной англоязычной газете The Korea Herald.

Ким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авторите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в области поля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он возглавля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поля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KOPRI), 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являет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РК по поляр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а, Арктика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важным регионом с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Таяние морского льда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удоходства и освоения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отметил Ким, усиливается конкуренция крупных держав за влияние и доступ к ресурсам региона.

Отдельно эксперт подчеркнул энерге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Арктики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Корее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природный газ арктиче-

ских регионов Сибир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Ямал, хватит, чтобы снабжать всю Европу в течение 30-50 лет... Еще больше газа на морском дне.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явить интерес к газу региона арктической Сибири", - сказал он.

Одновременно Ким указал на перспективность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призвав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МП прежде всего не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для доставки грузов между Азией и Европой, а как элемент долгосрочн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его мнению, Сеулу следует оценивать значение этого маршрут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беспечения доступа к природному газу, добываемому в арктических районах Сибири.

Специалист также указал на активность Китая в Арктике, подчеркну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ля Сеула торопиться, чтобы гарантиро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регионе. "В августе и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итай направил пять ледокольных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удов в Берингов пролив. Концепция маршрута "Ледян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Китая вызывает беспокойство у ряда стран. Южной Корее следует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обращать на Арктику", - указал о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Даже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х дети с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на ПМЖ на Родину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утверждены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расширяются критерии поддержки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Наверное, сегодня самая актуальная и обсуждаемая тема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это внесение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няты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лагодаря внесению поправок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возвращ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членов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их супругов, детей, супругов детей, — даже если сам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прибывший на Сахалин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уже скончался.

* Под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онимаются корейцы, род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прибывшие на Сахалин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Статья 2, пункт 1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глава Ким Гён Хён), 3 марта 2026 года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был рассмотрен и 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частичном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алее – Закон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Законопроект содержит полож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держку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обустройства и стабилизации жизн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пругов, детей и супругов детей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ленов семьи на момент смерт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закон будет обнародован 10 марта.

Закон с поправками вступит в силу 11 сентября 2026 года, то есть по истечении шести месяцев со дня его официального опубликования.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планирует оперативно завершить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в подзаконные акты, включая указ о применении закона, и с 2027 года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обустройства и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бновленным законом.

Закон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был принят в мае 2020 года, а в июле 2024 года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поправки, расширившие круг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ьи,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на ПМЖ: с «супруга(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 одного из его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вместе с супругом (супругой) этого потомка» до «супруга(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сех его детей и супругов этих детей».

Однак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ей закона,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члены его семьи не могли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оддержку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МЖ, так как переставали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критериям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ьи». Благодаря нынешней поправке, члены семьи, являвшиеся таковыми на момент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теперь включены в категорию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лиц 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Ким Гён Хён заявил: «Благодаря внесению данной поправки, в условиях старени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а смертей среди них, теперь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МЖ их детей, даже после смерти сам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тем, чтобы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озвращающие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могли стабильно обустроить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Являясь главны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ведомством по программам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реализует такие проекты, как:

- поддержка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МЖ, обустройства и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программа посещ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й;
- мониторинг поло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ернувшихся на ПМЖ;
- юрид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дарочных наборов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другие.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МЖ в 1992 год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5 690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вернулись в Корею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января 2026 года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ют 3 263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 члена их сем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ыборы в ВНС КНДР назначены на 15 марта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НС) КНДР 15-го созыва состоятся 15 мар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 ссылкой на решение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ВНС.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го парламента последует за съездом правяще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состоявшимся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где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ключев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цели на следующие пять лет.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сле выборов будет обновлено руководств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в частности, то, что нынешн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ВНС 76-летний Чхве Рён Хэ не был избран в состав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Сеуле готовы к любому развитию событий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готово к любому развитию событий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Мин Сок, выступая вечером 3 марта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в Сеуле.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конфликт, начавший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авиаударов США и Израиля по Ирану, распространился по всему региону, а Ормузский пролив фактически заблокирован.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ондовый рынок резко упал. Ким Мин Сок поручил министерства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обороны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и воинских контингентов,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н распорядился, чтобы вс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ведомства усилили мониторинг финансовых рынков и подготовили способы поддержк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кризиса. Ким Мин Сок призвал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 состояние поставок и запасов нефти, а также безопас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удов. Он призвал прессу воздерживаться от публикации непровер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з Ирана и Израиля эвакуированы около 140 корейцев

По сообщ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около 140 граждан РК 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х в Иране и Израиле, эвакуированы в Туркменистан и Египет. 24 человека покинули Иран поздно вечером 2 марта на двух автобусах. Среди них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К с семья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и граждане Ирана,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членами семей эвакуируемых. До начала эвакуации в Иране проживало около 60 граждан РК 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Израиля в Египет эвакуированы 113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62 гражданина РК и четверо граждан СШ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До начал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Израил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свыше 600 граждан РК, включая туристов.

РК расширит визовые льгот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К расширит сферу действия «виз высшего уровн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оздаст новую визов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Цель новой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в условиях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населе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3 марта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РК Чон Сон Х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изы высшего уровня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только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аний из восьми передовых отраслей, включая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робототехнику. Сфера действия виз будет расширена н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введена виза категории K-Core,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привлекать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 средним уровнем технических навыков, смягчая дефицит рабочей силы в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удет также запущена пилот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мал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в регионах нанимать на работу иностранцев. Новая визов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их долгосрочному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этих сферах возможен наем только сезо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ыставку «Наш Ли Сун Син» посетили более 4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пециальную выставку «Наш Ли Сун Син»,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центральном музее Кореи с 28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3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посетили 407.047 человек. Это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посетителей за всю историю проведения музеем специальных выставок. Экспозиция представила прославленного адмирала не только как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ероя, но и как живого человека с его сомнениями и жизненными исканиями.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работы выставки пяти последним посетителям были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Директор музея Ю Хон Чжун заявил, что музей и впредь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проводить интересные выставки, открывающие новые гран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РКИ

Открытость к диалогу с Вашингтоном и окончательный разрыв с Сеулом: Чем закончился съезд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в Пхеньяне

В Пхеньяне завершился IX съезд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Он задал ориентиры развития КНДР на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ульминацией форума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ый обозначил ключевы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гналы,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дтвердив неизменность ядерного курса и внутренние приоритеты режима.

Съезд завершился масштабным военным парадом на площади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рядом с лидером вновь появилась его дочь Чжу Э, котор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отвели подчеркнуто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в официальной хронике. Это усилило обсуждения возможной 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ации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власти.

Главны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 итогом стало фактическое оформление двойственного курса Пхеньяна: открытость к диалогу с США при одновременном окончательном разрыве с Сеулом. Все это будет строить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основе ядерного статуса Страны чучхе. Ким Чен Ын обозначил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ак фундам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лючевой эле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КНДР буд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аращивать и укреплять свои ядерные силы, расширяя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параметры.

Ким Чен Ын обозначил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ак фундам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и СШ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допустил возможность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По его словам, "перспективы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лностью зависят от Вашингтона", добавив, что КНДР "готова и к мирному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ю, и к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Если США откажутся от своей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то у нас нет причин, которые бы не позволили нам хорошо ладить с Вашингтоном", - сказал он.

Риторика в адрес Южной Кореи оказалась значительно жестче. Политику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назвал "спектаклем и низкопробной работой", заявив,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авсегда исключена из категор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хеньян тем самым подтвердил ранее объявленный курс на отказ от иде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римирения и фактическое закреп-

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как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враждебными странами.

Съезд, несмотря на ожида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сенсаций, оказался прежде всего сосредоточен на внутренней повестке. Он также стал этапом заметной кадровой перестройки.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состав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новлено, ветераны эпох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уступили позиции более молодым управленцам, связанным с нынешн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 был переизбран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ем партии, а его достижения были выделены как отдель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этап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что многие аналитик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ак символическое оформление "эпохи Ким Чен Ына".

Тем временем между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ей проявились серьезные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вопросам воен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Поводом стали авиационные учения США у 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поры вокруг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бесполетной зоны у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а также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масштабу маневров Freedom Shield.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тремится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во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опасаясь раздражать Пхеньян и осложнять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ем, тогда как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не стесняются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екину свое воен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регионе.

Ситуация обострила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омандование войск США в Корее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поспорили в отношении учений ВВС США в Желтом море,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вылет китайских истребителей на перехват. Сеул выразил недовольство, СМИ сообщили,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извинились. Однако затем военные США опровергли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Мы не извиняемся за поддержание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Хотя стороны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союз "остаётся прочным", 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табильно продолжается", ситуация стала редким случаем, когда расхождение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Сеулом проявились публично. Произошло это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тем, как Пхеньян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ужесточает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Юга и оставляет окно для диалога с СШ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им Чен Ын с дочерью и сестрой постреляли из снайперских винтовок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овел стрельбы на полигоне вместе с выс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раны, где лично вручил чиновникам и военным новые снайперские винтовки, выпущенны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оборо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не только демонстрацией вооружений, но и политическим сигналом - одновременно были раскрыты новые детали усиления позиций его сестры Ким Ё Чжон и появи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изнаки подготовки дочери Ким Чжу Э к роли возможной наследницы.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и дочь, и сестра тоже появились на полигоне и постреляли из винтовок.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27 февраля Ким Чен Ын встретился с ключевыми партийны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и военными командирами и вручил им "специ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подарки - новые снайперские винтовки, разработанные Академией оборонных наук КНД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также вручал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оружие.

На полигоне было сделано коллективное фото.

Ким Чен Ы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ружие - это знак его "абсолютного доверия" к руководящим кадрам. Политик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они будут "ответственно выполнять свои должностные обязанности ради победоносного продвижения" общего дела.

В числе получателей оружия оказались члены Центральной во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артии, командиры круп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руководител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а также ключевые партийные функционеры, включая члена президиума Политбюро Чо Ён Вона, нового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секретаря партии Ким Чжэ Рёна и отвечающую за протокол Хён Сон Воль.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уделили Ким Чжу Э, которая сопровождала отца на всех этапах церемонии.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кадры, где она помогает передавать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оружие, наблюдает за стрельбой через бинокль, находясь рядом с Ким Чен Ыном, а такж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целится и стреляет из винтовки.

Особенно примечательным ста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отдельной фотографии, на которой изображена только Чжу Э - без друг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уководства, что

крайне редко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медиапрактики.

По оценке профессора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Ян Му Чжина, демонстрация того, что Чжу Э умеет обращаться с оружием, может указывать на прохождение ею своеобразной "подготовки наследника". Кроме того, ее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встрече, посвященной сплочению ключевых кадров после IX съезда партии, фактически превратило мероприятие в символическую демонстрацию лояль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Ким Чен Ыну, но и его семь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лично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стрельбе из снайперских винтовок и другие дамы из окруж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СМИ КНДР распространили фотографии, на которых целятся и стреляют сестр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Ё Чжон и отвечающая за протокол Хён Сон Воль.

Эксперт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и о серьезном кадровом продвижении сестры лидера. ЦТАК впервые назвало Ким Ё Чжон "заведующе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отделом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 Ранее она занимала пост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выполняя роль основного публичного рупор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До уровня заведующей отделом она была повышена во время партийного съезда 23 феврал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отдел считается ключевым механизмом у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и партии: он отвечает за доведение указан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до всех партийных структур, контроль их исполнения и управление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ом. По словам старше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Института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Ин Тхэ, специфика работы ведомства предполагает "глубокий практический доступ к генеральному секретарю",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через него проходят все распоряжения лидера.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получение контроля над этим подразделением существенно усиливает влияние Ким Ё Чжон и закрепляет ее роль как одного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координаторов системы власти и внутренней консолидации режима. По оценке Ян Му Чжина, она, вероятно, будет играть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укреплении внутреннего единства систем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Рейтинг АЗС, связь н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обучение айтишник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ы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активистам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За Россию».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ередал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бращени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 решения были найдены для всех вопросов.

Губернатор поблагодарил активистов за роль эффективного моста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населением.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общественники много ездят по районам и из первых уст знают о проблемах людей, обратная связь доходит до руководства области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о.

Один из таких вопросов поднял член ОНФ Владимир Ромашов — он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качество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н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 Через пару десятков километров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 попадаете в вакуум. Связи и интернета нет практически до Ноглика. При этом маршрутом пользуются тысяч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 обрисовал ситуацию общественник.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пояснил, что проработает с РЖД вопрос обеспечения беспроводного интернета в вагонах или установки мультимедийной системы, как в самолетах. Параллельно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над расширением зоны покрытия связью.

Еще одной темой стало состояние авто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Активист Валерий Ерохов поблагодарил губернатора з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с очередями на АЗ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попросил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районы.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 одних заправках неудобная парковка, на других — закрыты санитарные комнат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гласился с инициативой и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публичный рейтинг АЗС региона.

— Нужно составить перечень с конкретными адресами и указанием проблемы. Мы не можем по волшебству обновить все заправки на островах за один день, но можем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постепенно,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ветлана Бетнарская передала просьбу от жителей СНТ,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доль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отское. Люди жалуются, что до некоторых автобусных остановок приходится идти несколько километров, и просят сдел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Глава области идею поддерж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пояснил: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ешеходов потребуются обустро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подъездные карманы. Проект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готов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атем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ерешли к обсуждению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Общественник Сергей Ли предложил активнее развивать киберспорт, сделав его своеобразным «карьерным лифтом» для будущих айтишник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звал инициативу хорошей и пригласил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ебят в «Школу 21» от Сбера.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200 человек уже проходят там обучение, 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нять еще 500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сосредоточатся в том числе на изучен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Говоря о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для молодых людей, губернатор привел данные рейтинга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едавно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ятерку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передив все субъек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многие города-миллионник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ошел в число лидеров по множеству показател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ы, соц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с детьми 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ежи. Так, рейтинг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ыпускники островных школ все реже стремятся покинуть регион и уехать в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ли другие мегаполисы.

— Молодые люди видят,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Каждый год на 25% увеличиваются контрольные цифры приема. Тем, кто не проходит на бюджет, мы компенсируем половину стоимости обучения. К поступлению ребят готовят лучш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 школе «Сахалин-Тех Алаид» — в этом году подготовку пройдут 4,5 тысячи школьников. Сам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поминает комфортабельную гостиницу, а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находятся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тогда как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на дорогу до них уходило бы часы. Все это мотивирует ребят строить будущее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ком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подчеркнула: высок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 это результат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ы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и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совместно вносят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ов.

Около 500 участников объединил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чемпиона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ДК «Родина»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Чемпионата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 Чемпионата высо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2026 года. Масшта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объединившие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оходили с 1 по 28

февраля и стали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этом году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чемпионат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бил свои прошлые рекорды, собрав 496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них — 156 школьников старше 14 лет и 340 студентов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мастерство по 84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компетенциям, охватывающим ключевые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от сферы услуг,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медицины до транспорта, логистики и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ращаясь к участникам торжеств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а Милишкевич подчеркнула значимость их достижений для будущего региона.

— Чтобы стать настоящи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многим приходится много трудиться, но вы уже в своем молодом возрасте являетесь настоящими мастерами своего дела. Вы — наша гордость и будущее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возлагаем на вас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ведь именно вам предстоит развивать ключевые отрасли и укреплять промышленную мощь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а Александра Милишкевич.

География чемпионата подтвердила масштаб события: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были развернуты в 20 локациях от Охи 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держку в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и оценку навыков конкурсантов обеспечили 59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притоке молодых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выпускники пришли на предприятие уже с практическими навыками и пониманием процессов в угле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Партнерство с Горным техникумом в рамках «Профессионалитета» помогает выстраивать подготовку кадров по запросу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вместно обновлять программы, повышать практику и заранее формировать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Это вклад в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компаний и экономики всего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подготовки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и Алёна Высоцкая.

Поздравить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а также разделить с ними радость триумфа на сцену ДК «Родина» вы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курирующих сферы компетенций чемпионата. Атмосфера в зале была по-настоящему волнительной и эмоциональной: аплодисменты не смолкали, когда имена лучших из лучших звучали со сцены. Для многих участников этот успех стал не просто наградой, а точкой отсчета нов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ути. Каждый выход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сопровождался поддержкой их групп, педагогов и наставников, которые вложили в своих подопечных не только знания, но и веру в победу.

— Эксперты всегда подходят к разработке заданий с выдумкой и вносят порой очень нестандартные, сложные случаи, например, технические неисправности. Ведь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н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остым проходным этапом. Мы стреми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задания вызвали сложность даже у самого эксперт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мастером в своей области. Это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 только преодолевая серьезные вызовы, рождается истинный профессионал,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эксперт чемпионата Антон Дёмин.

Кульминацией стал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кля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а, которая уже второй год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традицией чемпионат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анд, выступавшие в различных блоках компетенций — от сферы услуг,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медицины до транспорта и логистики — поднялись на сцену, чтобы символически подтвердить свою верность выбранному делу и высоким стандартам мастерства. Этот момент стал особенно трогательным и объединяющим, напомнив всем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что за кажды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успехом стоит единство сообщества, поддержка старших коллег и друзей.

Победителя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предстоит защищать че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итоговом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Чемпионат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30 марта по 30 апреля на площадках различны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них, а также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движения,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о большого пути в профессии, полного новых вызовов, достижений и побед.

Чемпионат «Профессионалы» — самое масштаб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в России, он проходит по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и массовым компетенция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просами реального сектора экономики.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фессионалитет»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Движ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организова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Более 10 тысяч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влечены в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стет интерес к спорту среди жителей и молодежи. Более 78 процентов горожан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ют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а в спортивные школы посещают порядка 10 тысяч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Ранее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ставил цель к 2030 году до 70 % увеличить долю россиян, которы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уделяют время спорту. Досрочно выполнить задачу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удалось благодаря развитию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Поддержка детского спорта дает нам уверенность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В 2026 году в рамках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ехали сильнейшие спортсмены страны — это лучший стимул для наших ребят. Регион многое делает, чтобы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не было преград. Ждем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в Дальнем — это современный зал для игр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Важно, что развитие идет не только в центре. В этом году в городе запуск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где спорт будет соседствовать с отдыхом. Это создает именно ту среду, где у ребенка просыпается желание выйти на улицу и погонять мяч, а не сидеть в телефоне. Интерес к спорту будет расти именно через такую доступность, —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 мнением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ртем Марков.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действуют 762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а. Современная баскетбольная площадка появилась и в Синегорске. Здесь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комфортных занятий: помимо нового покрытия и огражд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а раздевалка. В теплый сезон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востребован с утра до самого вечера — сюда приходят группами и семьями с детьми.

В игровой спорт вовлекается все больше детей и благодаря энтузиазму тренера Владислава Байбузы. Коренной синегорец уже шесть лет работает инструктором по спорту МАУ «Спортивный город» и проводит тренировки по баскетболу в родном селе.

— Мо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мечта — видеть своих ребят на серьез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Чтобы они побеждали, чтобы у них была цель.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спортивных городов.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ткрылось много разных объектов, спортивных секций — дети могут выбрать, то, что им по душе, — отметил тренер.

Многие ребята занимаются в секции годами. Для них баскетбол — это уже не просто хобби. Воспитанники Владислава Байбуз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мотивирует их после уроков снова и снова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спортзал.

— Баскетболом я занимаюсь с 11 лет. Здесь отличная атмосфера: мы все друг друга знаем, общаемся — это по-настоящему классное сообщество. Для меня спорт — это и нагрузка,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ебе, и правильный настрой, — рассказал Роман Крюков.

— Я в баскетболе уже четыре года. Тренировки иногда бывают непростыми, но если есть желание и стремление, то никакая усталость после учебы не помешает. Наш тренер очень хорошо чувствует команду и отлично нас учит, — добавила Арина Путилина.

Синегорские школьники участвуют в товарищеских турнирах: ребята соревнуются с командами из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и других районов. Есть в селе и взрослая спортивная лига — любительском чемпионате для игроков от 16 лет.

В поликлинике Анивской ЦРБ готовят к запуску новый рентген-аппарат

Анивская ЦРБ продолжает преображаться.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е для каждого»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поликлинике был заверш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а в январе поступил новый рентген-аппарат. Подготовка к запуску почти завершена —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ервые пациенты смогут приступить к исследованиям на современ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Предыдущий рентген-аппарат прослужил анивским пациентам около 10 лет, это стандартный срок эксплуатации для подобной техники. На замену ему пришло оборудов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оно обеспечит меньшую лучевую нагрузку на пациентов и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быстрее и точнее.

— Новый аппарат начн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уже в марте, сейчас мы завершаем последние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 нем планируется ежедневно проводить от 20 до 50 исследований.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и пациентов в лучевой диагностике,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етодическим кабинетом Иван Хавренко.

Аппарат буд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спросом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горожан, но и ближай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Ближайший рентген находится в амбулатории села Троицкое, туда направляли пациентов во время ремонта.

Оценил старания руководства Анивской ЦРБ и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от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Георгий Карлов.

—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моих рабочих поездок в 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 является проверка качества выполнения «Народной программы» «Единой России»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развития. То есть тех объектов, которые построены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менно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которые и давали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в программу, необходимо обсуждать реа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Они есть, люди их видят. И то, что сделано в Анивской ЦРБ, — яркий тому пример, — отметил Георгий Карл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было полностью обновлено — заменены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проведены косметические работы, расширены площади медицинских кабинетов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Уж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и дальнейше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включая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дорог и проведение ремонта подвального помещ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려인 강제 이주 90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건축·전시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는 자문위 첫 회의 개최, 2027년 말 완공 목표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고려인 역사박물관'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세워진다. 강제 이주 9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월 27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에는 건축·전시·역사 분야 전문가 10명*과 재외동포정책국장,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및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박물관 설계부터 유물 조사·수집, 전시 내용 구성까지 전 과정에 함께한다. 자문위원회는 박물관 개관 시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물관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박물관의 기본설계와 유물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고, 자문위원들은 안건 토의에서 설계, 유물 조사, 전시 등 박물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협 청장은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려인은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라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 문화를 지켜왔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한 소중한 동포"라며, "박물관이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를 배우는 공



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박물관 설계안과 유물 조사·수집, 전시 설계·전시실 설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이 되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고가영 서울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김대의 공간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 김상열 인천도시역사관 관장, 김상현 상명대 교수, 박제원 건축사사무소 담박 대표, 선진 타슈켄트 부천대 교수, 이용석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과장, 장영호 흥익대 교수, 최정우 울산대 교수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의 의미와 가치, 초등 교과서에 실린다"

-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 수록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되었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 전 세계 181개국 7,006,703명 (이와 별도로 약 864,000명의 동포가 국내 거주)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재외동포청 제공)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력서 콘텐츠 『재외동포의 이해와 모국기여』도 개발했다.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 관련 전문강사(홍보대사, 작가, 교수, 동포청 직원 등)를 파견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김경협 청장은 "학교 현장에서의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더 넓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재외동포 내용의 교과서 수록 및 이해교육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성과 연대를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과정 총론'과 '성취기준' 등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국내 초·중·고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가 추가로 수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안산 고려인 청년들, 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한다

재외동포청장, 안산 고려인 청소년·청년봉사단 발대식 참석 및 민생현장 방문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월 25일(수)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고려인 청소년·청년봉사단 제9기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봉사단 활동 소개와 임명장 수여, 우수 활동 단원 시상이 진행됐다.

고려인 청소년·청년봉사단은 2017년부터 활동해 온 자치 모임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이 서로 돕고,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며 꿈을 키워가는 단체다. 동네 순찰을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청소년안전팀 및 한-러 통역팀, 역사해설팀, 학습멘토링팀, 미디어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고려인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지키며 다시 일어난 역사"라며, "오늘 봉사단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은 지역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값진 경험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국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포용적 동포 정책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청년이 언어와 환경의 장벽으로 인해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교육과 성장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발대식 이후에는 고려인 청소년·청년들을 직접 만나 봉사활동 경험, 학업과 진로 고민,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려인 청소년·청년의 언어 적응, 학습 지원, 진로 설계 등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와 지역 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려인 청년들은 공공 일자리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



장학금 제도 개선 및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고려인동포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사안들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안산 지역 노령층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상황과 생활 속 어려움,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귀환 동포에 대한 현장 중심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과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현장의 제안이 정책으로... 고려인 청년 리더십 캠프 열려

역사 이해부터 취업 특강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첫 리더십 캠프

20세기 초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아픈 역사를 가진 고려인 동포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인천대학교(총장 이인재) RISE사업단과 함께 2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1박2일간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청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 행사가 아니라, '과거 이해(고려인 이주역사)-진로 설계-네트워크 형성'을 하나로 묶은 종합 프로그램이다.

1일 차에는 재외동포 정책 안내와 함께 진로·취업 특강,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일 차에는 고려인 이주사 특강을 듣고, 인천 이민사 박물관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탐방하며 우리의 이주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캠프는 지난 2월 5일(목) 인천 지역에서 개최한 재외동포청장과의 동포간담회에서 고려인청년들이 재외동포청에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

재외동포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프는 현장의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한 사례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는 2026년 신규 추진 중인 '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했다.

'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은 국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모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국내·외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전)주기 지원사업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지자체, 대학과 협력을 확대해 국내 귀환 동포 청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Фестиваль традиционно объединяет театральное сообще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тановится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культурных площадок округа.

2025년 한 해 сахалин주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14명 사망, 78 부상

2025년 한 해 сахалин주 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했는데 모두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분석 결과 일련의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부상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안전벨트를 고정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부상과 저속 충돌 시에도 중상의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안전벨트는 자동차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운전자를 비롯해 뒷좌석에 앉은 승객들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В 2025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4 человек погибли и 78 получили травмы из-за игнорирования рем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ДТП, в которых 14 человек погибли и 78 получили ранения, все пострадавшие в момент аварии не были пристёгнуты ремня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общают в островной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и. Анализ происшествий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ряде случаев тяжесть последствий могла быть снижена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рем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сутствие фиксации увеличивает риск смертельного исхода и тяжёлых травм даже при столкновениях на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й скоро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дчёркивают, что ремень безопасности — одно из самых эффективных средств пассивной защиты в автомобиле.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напоминаю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м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к водителями, так и пассажирами, включая задние сиденья.

중국 여성, 임신 28주 만에 5 쌍둥이 출산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 사는 24세의 여성이 우한의 한 병원에서 5쌍둥이를 출산해 남아 1명이고, 여아가 4명이었다. 의사들은 임신 합병증으로 인해 산모에게 태아의 수를 줄일 것을 권고했지만 젊은 부부는 5명의 아이들을 다 낳아 키우기로 결정했다.

2월 25일 산통이 임박해 임신 28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된 가운데 첫째 남아는 990g으로 탄생, 나머지 여아들은 각각 1.020kg, 970g, 1.030 kg, 870 g이었다.

신생아들의 '아프가(Apgar score: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지표)'점수가 10점 만점에 6점으로 의료진의 관찰 속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육되고 있다.

여성이 자연 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은 6천만분의 1이다.

Китайка родила пятерняшек на 28-й неделе беременности

24-летняя китайка из Синьцзян-Уйгур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КНР родила в уханьском госпитале пятерняшек — одного мальчика и четверых девочек. Об этом пишет местная газета «Янцзы».

Врач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уменьшить количество плодов из-за сложной беременности, но молодая пара решила сохранить всех детей.

Роды прошли 25 февраля на 28-й неделе с помощью кесарева сечения. Первым родился мальчик весом 990 граммов, затем четыре девочки — 1020, 970, 1030 и 870 граммов.

Младенцы получили шесть баллов из 10 по шкале Апгар.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и находятся в отделении

неонатологии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врачей, их показатели стабильны.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ероятность естественного зачатия пятерни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1 на 60 миллионов.

여행객, сахалин 산 정상에서 여친에게 청혼

сахалин에서 아름답고 로맨틱한 사건 펼쳐졌다. сахалин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중요한 결심을 하고, 산을 등반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했다고 '노위스티 сахалин' 이 소식을 전했다. 그의 특별한 청혼은 сахалин의 가장 아름다운 명소 중 한 곳인 미출스키 능선에서 일어났다

여행사 안내자는 이 소식의 기쁨을 공유하며 "우리 여행객이 자신의 아름다운 여친에게 진심으로 청혼을 하자 여성은 '좋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행사 대표는 한 쌍의 연인에게 행복과 화목함과 함께 오래오래 살길 기원했다.

이제 сахалин은 이들 가족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남을 것이다.

Она сказала «Да»: турист сделал предложение своей девушке на сахалинских вершинах

На Сахалине разыгралась настоящая роман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Гость острова решил на важный шаг и предложил руку и сердце своей возлюбленной прямо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горам.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Новости Сахалина».

Событие произошло,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на Мицунском хребте — одном из живописных мест острова.

«Наш гость сделал предложение руки и сердца своей прекрасной девушке. И, конечно, она сказала „Да!», — поделились радостью в компании туроператор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урфирмы пожелал паре счастья, гармонии и долгой совмест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 теперь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ажной частью их семейной истории.

(러시아 및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